

보육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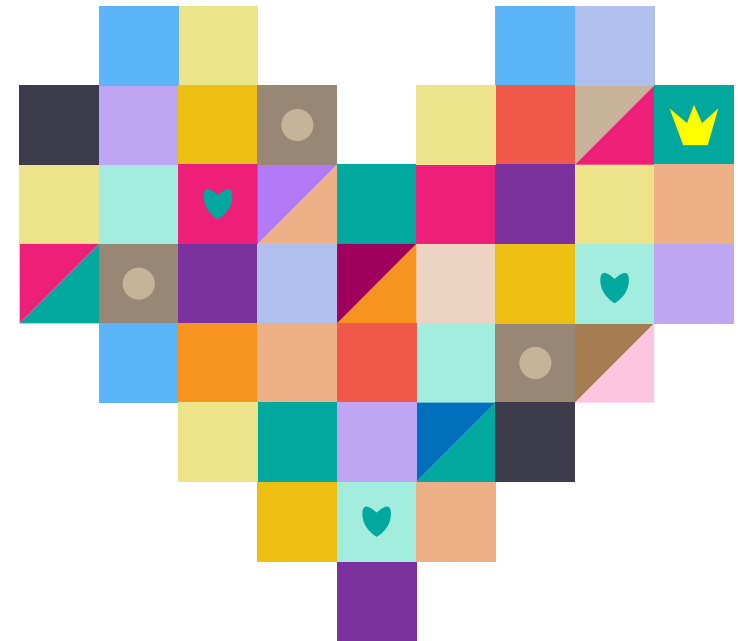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례집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례집

보육교사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례집



CONTENTS

I 사업소개 06

II 개별상담사례 08

- 1. 보육교사 진로 09
- 2. 관계 13
 - ① 원아
 - ② 부모
 - ③ 동료상사
- 3. 직무관련 28
- 4. 심리적성검사 32
- 5. 훈육과 학대 경계 42
- 6. 기타 44

III 집단상담사례 46

- 1. 러블리 욱블리 47
- 2. 너의 목소리가 들려 52
- 3. No.1, Only.1 57

인 사 말

“행복한 아이, 신뢰하는 부모, 즐거운 어린이집”을 위해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혜원입니다.
그동안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을 이용하셨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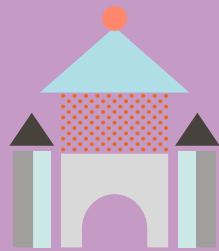
이번 사례집은 행복한 아이, 신뢰하는 부모, 즐거운 어린이집을 위해 노력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이야기를 수록하여 발간하고자 하며, 보육교직원들의
책임감 있는 열정을 격려하고 사랑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례집은 보육교직원들의 다양한 사례 중 비슷하고 많은 고민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육교직원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작은 심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사례집에 제시된 다양한 상담사례를 통해
향후 보육교직원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복한 교사, 신뢰하는 교사,
즐거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 혜 원

I

보육교사 ● 심포
사업 소개

사업 소개

사업 소개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에 대해 개별 및 집단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서비스입니다.



Teacher 교사
Engage in ~참여하다, 개입하다
Emotion (감정, 정서)의 합성어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의 감정에 참여’
보육교직원이 상담 참여를 통해 행복한 마음의 싹을 틔워 새로운 출발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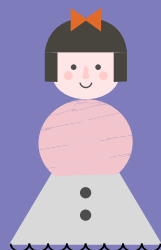
대상	경기북부지역 보육교직원
신청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신청서회신
유형	온라인(전화, 홈페이지) 오프라인(센터내방, 어린이집 방문)
방법	비대면상담, 대면상담(개별, 집단)
내용	비구조화 구조화 - 회복탄력성 통통, 에너지 팡팡 - 러블리 육블리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NO.1, ONLY.1

들어가기

이 사례집은 2020년 1월 ~ 2020년 7월에 진행된 상담내용 중 같은 고민을 가진 내용을 선별하여 수록을 위해 약간의 개작 과정을 거쳤습니다.

II

보육교사 ● 심포 개별상담사례



보육교사 진로

관계

직무관련

심리적성검사

훈육과 학대 경계

기타

01 보육교사 진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Q — 보육교사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드네요. 슬럼프 같아요.

A — 슬럼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익숙하게 쓰지만 정확한 뜻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슬럼프를 영어사전에서 검색하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 상태가 비교적 길게 계속되는 일. 순화어는 ‘침체’, ‘부진’.]으로 나타납니다. 보육교사의 업무특성상 아이들을 보육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한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적응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보육하면서 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과에서의 모습과 업무에서의 모습에 대한 차이가 없다보니 더 구분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진로적성검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홀랜드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이 홀랜드 적성검사에 따른 보육교사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홀랜드 적성탐색검사에 의한 직업성격유형과 보육교사의 직업유형의 일치도가 사회형이 많아 일치한다고 합니다. 다만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홀랜드 적성탐색검사에 의한 보육교사의 직업성격유형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조주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렇다면 내 적성에 맞는건데도 나는 왜 걱정을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신텐데요. 적성은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사람의 성질, 성격, 자질이 부합되는지를 보는 부분이며 적절한 훈련을 통해 지금을 완료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고정적 특성이 아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어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을 통해서 선생님의 모습을 잘 파악하신다면 선생님의 직무만족 또한 올라가면서 적성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이 또한 지나가니 한 걸음 내딛는 걸음을 물러나지 않으시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커리어넷”을 통해 적성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보육교사 진로 미래가 불안해요

Q — 나이가 많아 일에 대한 부담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겨요. 시대에 발맞추기 어려워 자책을 하게 되네요.

A — 100세 시대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고, 70대 노인이 노인회의 막내라는 이야기가 돌리고 있습니다. 늦은 결혼에 따른 늦은 자녀, 그리고 길어진 삶에 대한 준비가 없는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아직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직원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령, 경력을 불문하고 많이 이야기 하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 여성전문 매체 ‘우먼니틀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극복 방법 5가지’를 소개하면서 5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삶의 속도를 늦춰라.

둘째, 미신을 믿지마라.

셋째, 당신의 미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넷째, 관찰은 척하지 마라.

다섯째, 긍정적인 태도를 갖자.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이 다섯가지는 현재의 나를 보지 않으면 미래의 모습 또한 다르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한번 보세요. 내 예쁘고 고운손이 보이실겁니다. 근데 이 손이 너무 예뻐서, 또는 못나 보여서 눈과 가까운 곳(코)에 대고 보세요. 선생님의 손으로 보이시나요?

내 삶이 내 모습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에서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멀리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터널에 있을 때처럼 한가지로만 보인다면 걱정과 불안이 커지지만 넓게 보며 원인을 찾고 변화를 위해 움직이면 긍정적인 모습을 찾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는 연습, 그리고 그런 장점들을 주변에게 지지받으심을 통해서 선생님의 미래를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01 보육교사 진로 잘 하고 있는건지 걱정이 돼요

Q — 일이 지치고 무척 힘이 듭니다. 내 역량보다 많은 일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 늦춰지고 놓치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잘하고 싶지만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자주 듭니다.

A — 의구심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사전에 의하면 “믿지 못하고 두려워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잘 하고 싶은 나의 마음에 자주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것! 바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마음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강연가이며, 본격적인 자기계발서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데일타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낳는다.

행동은 자신감과 용기를 낳는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지 마라.

밖으로 나가 움직이고 행동하라”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몇 년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직장인의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직장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심리적 상태, 업무, 대인관계 측면으로 구분하고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직장행복 3대 요소를 중심으로 심리적 요인에서는 마음의 건강, 업무요인에서는 의미와 성장, 대인관계 요인에서는 지원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할까요?

실제로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방법이 될 수 있고,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는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휴식이나 명상 등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교육 등을 통한 성장이 있을 수 있겠죠. 지원적 관계에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출근하고,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불안해하는 선생님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잘한 부분을 칭찬 받으시면서 나에 대한 의구심이 아닌 나의 다양한 모습으로 채워지는 하루를 다독여주세요.



01 보육교사 진로

학업을 더 하면 도움이 되는지 고민이에요

Q — 무난하게 일을 하고 있고, 나에게도 맞는 것 같은데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인가 더 해야 하는지 늘 고민을 합니다. 공부를 더 해야하나? 하면 나아질까? 어떤 공부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A —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을 비교하면 나에 대한 점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삶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내 삶의 주인공인 내가 아닌 타인이며 너무나 다양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다른 점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전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무난해’라는 마음 또한 아주 좋습니다. 그 두가지는 내 삶에 대한 내 생각임으로 틀린 답이 아니라 다양한 답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발전하고 싶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진로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학생때에는 그저 공부를 해야했고, 졸업하면 직장을 잡아야 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기본적인 욕구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결과지향적으로 찾아왔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내 모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로고민이라고 하면 10대들이 하는 고민 같고, 어른이 되면 안 할 것 같지만 길어진 삶과 급격한 변화에서 진로고민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공부하는 저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것처럼,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은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며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위한 단계 또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은 아동학, 상담학, 여성학, 교육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삶을 위한 목표와 가치를 잘 설정하시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내 선택에 대한 환경을 책임지고 감당해야함으로 지금의 사회에서 내가 행복하면서도 발전할 수 있는 삶,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가요?

정보통신망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에서 진로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02 관계 - 원아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어요

Q — 아이들을 다 예뻐해야 하는데 몇 명만 예쁘고, 밍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건가 고민이 됩니다.

A — 편애.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열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 손가락 없다”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스 캠퍼스(UC캠퍼스)에서 부모를 조사한 결과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아픈 정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연구가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 셋중 둘 이상이 편애를 인정한다는 결과였죠.

편애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나와 닮은점에 대한 유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닮아서 예쁘기도 하고 닮아서 싫기도 한 부분이지요. 그렇기에 편애는 본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지는 않음으로 전문가인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준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잘 맞는, 그리고 그런 것 같은 아이에게는 강점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는 자꾸 단점이 보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또!!” 라고 이야기하며 부적응행동을 중재할 때처럼 말이지요.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달는 순간 부모님이 들어오시며 “또 자?”하고 물어보셨던 경험. 반대로 이제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왜 공부 안 하니?”라고 하시면 당장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의 강점을 보기보다 단점을 기억하시고 표현하셨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탐구하고 바꾸면 미운 아이도 예뻐보이는 마법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전에 저는 장애아동을 보육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의 성향상 문이 열려있거나 정리 바꾸니가 비뚤어져서 있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나타나서 문을 닫고 열을 맞춰 정리하는 모습이 제게는 문제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00이는 문닫기 대장이예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제게는 문제행동, 친구에게는 매번 열리는 교실문을 잘 닫아주는 대장 같은 행동이었던 거죠. 문제행동에서 부적응행동으로, 지도에서 중재로, 약점지적에서 강점발굴로, 심리학 또한 긍정심리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편애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나랑 잘 맞는다, 안맞는다는 따라 다르게 느끼고 계셨던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음으로 중심에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친구들의 다양한 강점을 찾아보심이 어떨까요?

02 관계 - 원아 “안돼”라고 자주 말 해요

Q — 아이들 안전을 위하여 제지하는 것이 많아요

A —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성장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전의 문제 등으로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제약을 두어야 하는 보육현장에서 선생님의 어려움과 고민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아이들은 온몸을 접촉하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경험을 통해 학습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이때 긍정적 경험을 통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경험은 뇌에 외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언어발달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친구들의 발달이 빠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문장에 대한 단어, 어휘를 모두 이해하기 보다 사진을 찍듯 이해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 또한 사진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데 “뛰면 안돼.”라는 말을 아이들이 사진으로 또는 그림으로 남기거나 기억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도 함께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아마 좌회전금지, 주차금지처럼 그것을 하는 행동 그리고 빨간 엑스 표시로 그려지실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부정표현들을 이해하고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었다가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뛰면 안돼.”의 말 속에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보자.” “천천히 가보자.”의 표현은 어떤가요? 안전을 위해 제지하고 중재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다급한 마음에서 “~하지 마.”, “안돼.”라고 나온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해야해?”라는 궁금함을 남깁니다.

특수교육학에서는 긍정적행동지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부적절한 문제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다양한 배경에 따라 종합적인 중재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의 감소와 제거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개발이나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긍정적행동지원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 ① 기능평가 : 학생의 행동이 지니는 의미 해석하기
- ② 가설수립 : A-B-C관찰법
- ③ 가설에 따른 행동지원계획 수립 : 환경에 대한 변화, 대체행동 제시
- ④ 지원 실시 및 평가

02 관계 - 원아 울고 소리지르는 아이가 있어요

Q — 만2세 아이예요. 말이 늦는 편인데 지시따르기도 안되고 놀 소리지르고 웁니다. 안아서 달래주면 멈췄다가 다시 소리를 질러요. 다른 친구들이 놀라서 울거나 따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A — 아이들은 온몸을 접촉하면서 세상을 배워가고 경험을 통해 학습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이때는 긍정적 경험을 통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경험은 뇌에 외상을 입힌다고 합니다. 언어발달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은 친구들의 발달이 빠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영유아들의 발달에 대한 개인차가 큰 영아의 경우, 첫 사회적인 경험을 하는 어린이집에서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표현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거나 피드백 받지 못한 경험들이 울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찰과 기록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따라 중재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① 문제행동기록 : 심한 정도, 빈도, 방해 정도

② 문제행동기능 : 감각추구, 과제회피, 관심추구, 보상추구

③ 중재방법 :

- 규칙 만들기
- 물리적 환경 바꾸기
- 예측 가능한 상황 만들기
- 관심이나 물건 제공하기
- 감각자극 제공하기
- 활동 제시 방법 변경
- 대체행동 찾기/만들기
- 사회적 상황이야기
- 그림교화의 의사소통 체계
- 우연(우발) 교수
- 언어적 자기 교수 훈련
- 일반 적응행동 중재 : 강화, 소거, 타임아웃, 자기점검, 둔감법 등

영유아들이 보이는 부적응행동에는 다수의 영유아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의사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많이 나타납니다.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한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실 수 있다면 아이의 행동에 대한 욕구와 중재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02 관계 - 원아 편식지도 힘들어요

Q — 만3세반을 맡고 있는데 편식이 정말 심한 아이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편식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계신데 다양한 중재방법에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먹기 전에는 “잘 먹을 거예요” 말도 먼저 하는데 정작 급간식 시간에는 이탈하거나 말로만 대답해서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A — 아이들의 편식지도는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업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편식지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골고루 잘먹는 부분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단계에 따라 지도의 목표와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성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편식지도 매뉴얼을 제작하였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편식은 부모인형, 주의 산만형, 상호작용 부족형, 예민성 음식거부형, 영아산통형, 섭취불안형, 건강이상형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예민성 음식거부형의 경우는 음식의 맛, 냄새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히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눈에 띄게 불안해 합니다. 그러므로 식재료와 친해지기, 간접노출, 소극적노출, 적극적노출로 아이의 음식거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산만형의 경우 식사시간에 움직임이 많아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거나 주변의 자극에 민감해 이동이 잦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간을 정해 환경을 조성하고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갖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지시나 명령이 아닌 “해볼까?” 등의 권유와 지지적인 상호작용으로 아이의 집중을 지원하고 바로 식기 등을 정리하여 아이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지원함이 좋습니다.

영유아 식습관 지도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아이를 바꾸는 것보다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이해심)
2. 아이를 유형별로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용통성)
3. 식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인내심)
4. 아이의 식습관은 부모의 식습관을 닮아갑니다.(책임감)
5. 아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와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협동심)

02 관계 자꾸 넘어져서 다쳐요

Q — 만1세반에 저희 반 아이요. 걷기 다 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은 뛰기도 하는데 유독 그 친구만 넘어져요. 보호대를 착용하면 조금 나을텐데 부모님은 보호대도 안 보내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니 계속 아이를 앉아 있게만 할 수 없고, 놀이하도록 하면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A — 영유아들의 발달은 위에서 아래로, 대근육에서 소근육, 중심에서 바깥으로 발달합니다. 고개를 들고, 팔다리를 들고, 뒤집기와 되집기의 운동을 보이고 배밀이, 앉기, 기기, 서기, 걷기 등의 발달 과업을 통해 대근육의 발달을 보입니다. 발달과업에 있어서 12개월에 걷기를 시작하고 15개월 영아는 거의 넘어지지 않고 혼자 서고 걸을 수 있으며, 18개월쯤에는 서툴지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과업과 다르게 잘 넘어지는 경우 대근육능력 발달의 미숙, 균형감의 부족, 조절능력의 미숙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근육능력의 발달이 미숙할 경우 과업보다 더딘 속도로 발달할 수 있으며 균형감의 부족의 경우에는 신체구조상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는 조절능력의 미숙으로 앞만 보고 걷거나 뛰는 경우 넘어지거나 부딪힐 확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죠.

영아의 경우는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걷는 시기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몸의 중심이 아직은 위에 있고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신체구조상 불안정한 자세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 움직이는 몸의 속도의 차이가 있고 아직은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불필요한 물건이나 교구장 정리, 보호대 착용 등)을 만들어 주시고, 인적환경을 통한 대근육 활동을 제공하여 대근육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영유아문제행동 보육교사 지침서에는 대근육발달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예시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기: 빠르게, 느리게, 앞으로, 뒤로, 애벌레처럼, 신호에 따라 등
- * 걷기: 세게, 약하게, 큰 보폭으로, 작은 보폭으로, 군인이저씨처럼, 신호에 따라, 손뼉치며 등
- * 달리기: 빠르게, 느리게, 무릎을 높이 들고, 호랑이처럼, 원을 돌면서 등
- * 공차기: 오른발, 왼발, 멀리, 가까이, 친구에게, 축구선수처럼 등
- * 점프, 호핑(한발 뛰고 착지), 겔로핑(엇박차 뛰기) : 강하게, 약하게, 말처럼, 토끼처럼 등
- * 미끄러지기 : 다리를 좁게/넓게 벌리고, 한번, 여러번, 스케이트 타듯이 등

또한 보호대착용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함으로 보호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세요.



02 관계 - 원아 어린이집에서는 말을 안해요

Q 만2세 아이입니다.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집안에서 막내예요. 엄마가 오빠, 언니를 신경 쓰느냐고 많이 신경쓰지 못하시긴 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 말을 하나도 안해요. 그렇다고 특별히 울거나 떼를 부리는 일도 없는데 집에서는 엄청 수다쟁이인데 어린이집에서는 왜 말을 안할까요? 정말 많이 기다려줬는데 내년에 만3세 올라가면 친구들도 많아지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A 혼자 놀거나 가족과는 수다쟁이 아이이지만 집 밖으로 나가거나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서는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말 대신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사용하는 아이. 선택적으로 함구한다는 의미로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인 헤이든(Torey L. Hayden)은 이런 선택적 함구증에는 불안정한 애착에 따른 공생적 함구증, 침묵을 무기로 한 수동-공격적 함구증, 급격한 변화에 따른 반응적 함구증, 말하는 것에 대한 공포에 따른 언어공포증적 함구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영유아문제행동 보육교사 지침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행동의 원인에는 유아의 내향적인 성향, 높은 자의식에 따른 생각하고 참는 경향, 사회성 결여로 인한 정신적 긴장 또는 압박감, 인정받고 싶은 자기중심적 성향으로 보았죠. 이런 선택적인 반응에는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애착부터 사회성 증진 방법으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다가가 주셔야 합니다. 아동이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표현에도 적절하게 반응해주시고, 어린이집이라는 환경, 교사, 친구들과의 생활에 긴장감을 덜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환경들을 만들어주세요.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이 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1:1, 일정한 공간부터, 다수,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천천히 시도해 보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아동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지지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02 관계 - 원아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Q 만3세에 남자친구 한 명이 유독 한 여자친구를 따라다니면서 챙기고 놀이도 해요. 성교육을 하고 나서 음순, 음경을 알려줬는데 이걸 자꾸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낮잠 시간에 서로 엉덩이를 토닥이며 “잘자.”하고 인사를 합니다. 놀이 중에 팬티를 내렸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동네 주제로 병원놀이 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분리를 요청하셔서 낮잠, 놀이 중 모두 분리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만3세가 되면 아이들은 성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건 알아가고 있다는 것임으로 궁금증 또한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행동은 어른의 입장에서 해석된 행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른에게는 성적 행위지만 아이들에게는 놀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소아의학회, 호주교육부, 영국아동학대방지전국연합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과 특성에 따른 보고서를 종합하여 보면 영유아의 성행동 문제의 기준은 일상적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나뉩니다. 일상적 수준은 다른 관심사로 주의전환이 가능하고 간단한 교육과 제지로 감소되는 행동이며 우려할 수준은 지속성, 반복성, 은밀성을 나타내는지 발달수준에서의 일탈이 있는지, 낮은 강제성을 나타내는지로 기준으로 합니다. 위험한 수준은 우려수준에서 강요와 폭력성, 타인에 피해, 적응을 방해하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두는데 발달수준에 적절하고 비폭력적이라면 저위험에 속합니다. 이런 성행동문제는 성적경험, 폭력, 역경, 취약성 등의 요인에 따라 나타난다고 하는데 단일원인은 없음으로 설부른 추정이나 낙인은 금물입니다. 성행동의 수준별 대응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상적 수준** :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으로 이해, 주의 전환과 적절한 교육(연령에 적절한 성지식과 경계와 존중에 대한 교육), 균형있는 관심과 흥미로 유도
- 2. 우려할 수준** : 발달과정의 연속성상 하에서 이해, 관련한 원인이나 계기에 대한 탐색(부적절한 성적 자극, 가정내 스트레스, 취약성 등), 적절한 교육과 주의전환 및 원인에 대한 조치
- 3. 위험한 수준** : 유아들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 확보, 평가와 치료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문제해결방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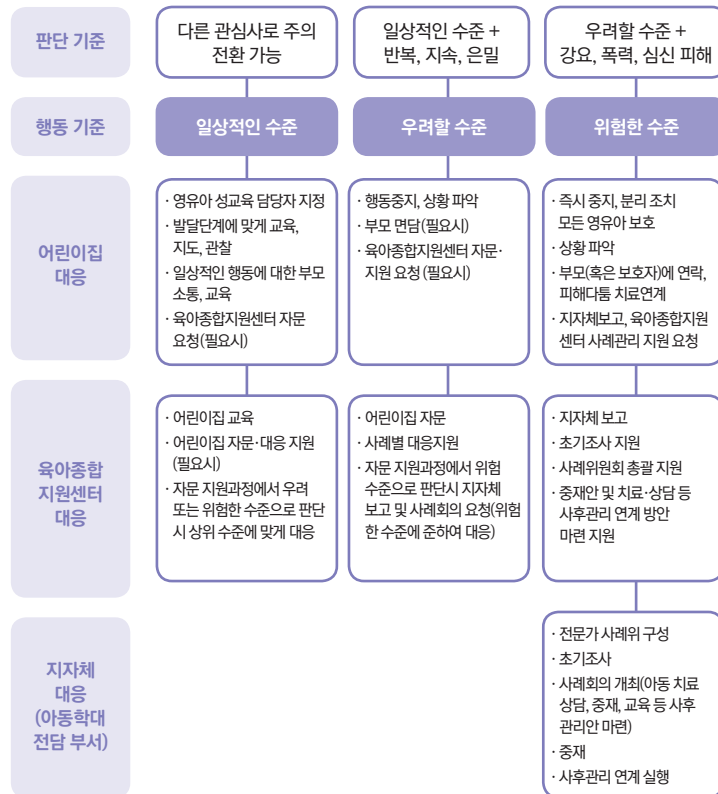
2020년 8월부터 보육사업에 관련 내용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련 「2020년 보육사업안내」개정 안내

주요 개정 사항

- ▶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 지정) 어린이집 내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 지정
- ▶ (성 행동 수준별 관리 대응 체계) 영유아 행동수준(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대응 방법 안내
- ▶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영유아 성 행동문제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센터 인력 지정, 어린이집 자문, 지자체 초기조사 지원 등 역할 규정

성 행동 수준별 관리 대응 체계



02

관계 - 원아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가 있어요

Q

만4세 친구예요. 하루에도 수십번 사물함에 들어가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요. 신나서 들어가고 기분 나빠서도 들어가고, 교실 밖으로 나가면 혼자 놀고 있고, 안된다고 이야기해도 금새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놀 마음을 줄여요.

A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의 원인과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아이들이 나타내는 행동은 위험, 방해, 상동의 직관적 문제행동과 회피 동기, 관심이나 보상, 감각등의 기능적 문제행동으로 나누고 있으며 영유아 문제행동 보육교사 지침서에서는 위험행동의 원인으로 물리적 환경, 신체인식 및 조절력 부족, 신체에너지 발산욕구, 결과예측 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선행사건과 반응, 후속결과를 살펴 보시며 행동의 기능을 평가해보심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아동일수록 보육환경에서의 생활을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음으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주심이 좋습니다. 대근육발달을 돕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고 발달수준과 흥미에 맞는 대근육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주세요. 또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만들어 지킬 수 있도록 할 때에는 세부적인 규칙보다 점진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상호작용 해야합니다. 이때 교사가 정한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런 표현들을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령 기본이 좋아서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나간다면 “신나~”, “야호~”말해보고 제 자리에서 점프를 뛰여보게 한다거나, 회피기능에서의 이탈이라면 정해진 장소까지만 벗어날 수 있는 장소나 안정적으로 느끼는 장소를 정해주는 등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 관계 - 부모 수시로 연락이 와요

Q — 초임이라 그런지 부모님들과 만나게 늘 긴장상태입니다. 수시로 연락을 하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아서 받으면 제 일을 못하고, 안 받으면 왜 연락이 안되냐며 저를 몰아 가십니다.

A — 사회보장정보원의 웹진아이사랑에서 어린이집-부모★더 좋은 관계를 위한 에티켓 10가지가 정리되어 안내가 되었습니다.

- ① 등원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 ② 교사의 말을 믿고 신뢰해주시고 존중해주세요.
- ③ 반갑게 인사하기 등 기본예절을 지켜주세요.
- ④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꼼꼼히 살펴봐주세요.
- ⑤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의뢰서와 꼭 1회분만 따로 챙겨 보내주세요.
- ⑥ 전염성 질환으로 아픈 아이는 반드시 가정 보육해주세요.
- ⑦ 개별적인 특별한 요구는 자제해주세요.
- ⑧ 아이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용 시간과 약속된 등하원 장소를 지켜주세요.
- ⑨ 아이가 다치거나 다툼으로 인한 상처에 대해 우선 교사와 상담하세요.
- ⑩ 등하원 인수인계시 가급적 다른 아이들을 배려해 짧게 상담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간약속 후 개별면담을 신청해주세요.

내용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모르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도 숙직하고 있어야 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을 등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퇴근시간 이후의 회식이나 연락 또한 업무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지를 할 수 없지만 서로간의 지켜야할 약속이며 예의로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 또한 알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원장님과의 대화입니다. 원장님을 멘토로 하여 어떤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나눠보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02 관계 - 부모 내 말을 믿지 않아요

Q — 새로운 아이들이 개성이 너무 강해서 제지하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어울려야 하는데 하나하나 알려줘도 어려워합니다. 이런 교육관이 부모님들과 맞지 않고 부모님들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A — 사람은 누구나 기대라는 것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타인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들이 내 생각과 달라지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한 연구(보육교사의 부모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연구, 이연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보육교사들은 부모들이 바라는 교사상(영유아들의 발달에 대한 책임을 가진 교육자에 대한 인정, 인간으로서의 보육교사상), 부모와의 연계, 부모가 가져야 할 부모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마음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돌봐주고 경험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노출은 아이를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내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임으로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에 대해 아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다른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도 다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보육교사가 기대하듯 부모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이 부모들에게 하는 기대를 하는 이유는 보육교사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원하는 보육교사로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을의 구성원인 부모와 교사의 소통을 통해 아이라는 중심을 잘 돌봐주시고 선생님의 정서적인 소진도 덜 하면 긍정적인 부모-교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2 관계 - 부모 나는 감정쓰레기통입니다



Q — 정말 이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엄마들이 나에게 쏟아 붓는게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람들의 감정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A —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업무보다 사람간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높을 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고 합니다. 보육교사이지만 저희도 감정도동자임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자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의 고객 응대업무를 하는 노동입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거나 일대일로 통화, 대접받는 느낌, 만족감 등을 느끼도록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유도해야 하는 일, 직원연수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용주가 직원들의 감정적 활동에 대해 일정한 통제력 행사 가능. 이런 특성에 보육교사도 감정노동자에 속합니다.

2019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의 감정노동과 인권에 대한 포스터 “선생님의 인권, 우리의 인권만큼 소중합니다”, “선생님을 대하는 모습, 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를 제작하였습니다.

예방이 최선이며 서로간의 에티켓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선생님들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압니다.

고용부, 안전보건공단에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 관계 - 동료·상사 나도 잘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Q — 초임입니다. 잘 하고 싶은데 일도 적응하기 어렵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일도 쫓아가기 바쁩니다. 잘해야 하는데 자주 실수하는 것 같고, 다른 선생님들은 똑딱똑딱 하시는거 보면 긴장되고 행겨주신다고 하시는 소리인걸 알지만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A — 아이들에게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듯 어른들도 새로운 곳에서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적응지능이라고 하는 AQ(Adaptability Quotient)가 지능지수인 IQ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인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응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응지수(AQ)는 “유연하고 민첩하며 변화에 적응하려는 의지”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는건 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지지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불안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 물어붙어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요청과 그 도움으로 인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지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는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을 다섯가지로 요약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호기심을 가지세요. **둘째,** 집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셋째, ‘만약에’라는 질문을 하세요. **넷째,** 모르는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질문하세요.
다섯째,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탐구하세요.

한 연구에서는 초임선생님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인 대처방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교사가 경험하는 역할수행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초임선생님의 능동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결과인데 능동적인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적응하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은 엄마 곁에서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환경의 반경을 넓혀가고 소통을 넓혀갑니다. 울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친구들은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적응을 보이지만 소극적인 탐색을 하는 친구들은 적응의 속도와 안정의 정도에서 차이가 느껴졌을 겁니다.

어른인 저희도 그렇습니다. 보육하는 아이들처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타인이 보이는 모습에 대한 걱정보다 나를 잘 드러내기 위한 연습! 셀프리더십입니다. 자신의 목표달성과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나의 사고와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 책임지면서 영향을 미치는 과제, 선생님은 어떤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가요?

긴장되고 걱정되는 모습 어린이집에 첫 등원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안정된 모습으로 적응시켜주시듯 선생님의 셀프리더십을 통해 멋진 선생님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떨까요? 저는 선생님의 그런 모습이 기대됩니다.

02

관계 - 동료·상사

챙겨주면 잔소리, 안챙기면 꼰대 라고 해요

Q

주임으로 있습니다. 원에서 나이도 많은 편에 속하고 주임이라 챙겨야 할 것도 많고, 놓치는 것도 많고 정신이 없어요. 나름 한다고 하는데 자주 말하면 꼰대같고, 안 챙기면 주임인데 안 챙겨 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중간관리자 참 어렵습니다. 동료교사들 사이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하고, 원장님과의 소통에서는 팔로워십을 발휘해야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를 외치시며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혹시 링커(Linker)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리더십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링커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링커란 말 그대로 '링크(Link)'하는 '사람(-er)'을 뜻합니다. '두 개 이상의 물질이나 현상, 조직을 하나로 묶거나 결합시키는 (Link)' 작용을 하는 것, 혹은 사람(-er)이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어린이집에서의 중간관리자가 그런 링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관리자 워크샵 등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 타인의 마음을 아우르는 것, 나의 마음을 잡는 등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만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타인을 위한 마음이 나의 마음보다 커져서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그런 의식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해야할지에 대한 생각의 길에 자주 방해가 하게 되죠. 이런 미로같은 길을 지나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여긴 어디인지 안개진 길을 걷는 것 같고, 미로를 헤매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실겁니다. 꼰대는 아니고 싶는데 꼰대짓을 해야하는 아이러니 상황!

링커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서는 최고의 링커를 만드는 6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능수능란한 경청자, 중재적인 통역자, 관계경영자, 지식의 중계자, 평가적인 반대자, 중립적인 응원자 그리고 링커로서 최고의 현재를 보내는 능력은 다음의 네가지를 제시했죠.

첫째, 일단 모든 것을 현재에 쏟아 부어라. **둘째,** 눈은 리더의 자리에, 몸은 링커의 자리에. **셋째,** 과정에 집중하고 그를 즐겨라. **넷째,** 현재를 글로 적어라.

꼰대는 아니지만 리더의 눈을 가지고 원장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 모든 것을 현재에 쏟아부으며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움직임에 늘 참여하는 사람, 아이들의 성장과정,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 집중하고 즐기는 사람. 즐긴다고 하기엔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메모하며 상담받으시는 선생님의 모습. 진정한 링커 아닐까요?

02

관계 - 동료·상사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Q

교사들이 자기들만 힘들다고 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합니다. 알아서 척척해주고 이 어린이집의 교사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시키면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하지 않으려는게 눈에 보여요.

A

예전에는 애사심에 대한 개념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충성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의 개념이 더 큼니다. 어떤 설문에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애사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높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속감의 결여는 지속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자부심이 없으니 충성도가 낮고, 업무도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낮은 성과, 낮은 애사심 등으로 반복된다고 합니다.

2002 월드컵 4강, 김연아의 금메달 등 내가 관심있는 것에 대해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할 때 성취감이 극에 달하고 저절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애국심이 샘솟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런 성취감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이런 성취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한 연구에서는(보육교사의 교사 효능감과 교사역량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보건복지연구, 신현정, 박진성, 2019) 보육교사들의 심리적인 소진이 정서고갈, 성취감 저하, 냉소로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역량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역으로 선생님들의 성취감을 높여 우리 어린이집의 직원, 보육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 심리적인 소진이 되지 않도록 정서적지지,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쓰시는 모습이 훨씬 많음에도 메스컴 등에서 매의 눈으로 아주 극소수의 안 좋은 모습을 비추습니다. 그런 모습을 기준으로 누군가가 나를, 동료와 타인을 보고 있는 모습을 느끼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육현장에서 스스로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취감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성취감은 자기관찰을 통한 자기설정목표, 자신에 의한 관리, 리허설, 자기 보상, 자기 비판을 통한 셀프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존중을 추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이를 지지해주시다면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보육교사들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3 직무관련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궁금해요

Q 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야하는데 수강방법이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센터 온라인 교육 수강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① 회원가입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별회원 가입(인증서 없는 경우)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1566-3232(단축1번)으로 문의
- ② 교육신청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 교육 → 교육신청 → 교육명 → 신청 → 개인정보입력 후 확인
*개인정보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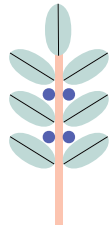
[수강방법]

- ① 계시된 동영상 강의 수강 : 교육당일 개인정보신청내용에 따라 문자 또는 메일로 교육주소(URL)발송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수강
- ② 실시간 화상강의 수강 :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Zoom 설치 → 교육당일 개인정보 신청 내용에 따라 문자 또는 메일로 교육주소(URL)와 회의번호, 비밀번호 발송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참여

[수료확인]

- ① 만족도조사 참여(필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정보마당 → 설문조사 → 교육명
- ② 수료증출력 :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어린이집지원 → 보육교직원교육 → 교육신청목록 → 교육명 → 수료증출력

교육의 특성에 따라 교육신청방법, 수강방법 등이 다르므로 교육안내문을 꼭 숙지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육담당자에게 연락주시어 교육참여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3 직무관련

평가제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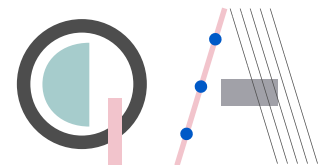
Q 평가제를 앞두고 있어서 평가제에 대한 걱정이 큼니다.
평가제 왜 하나요?

A 평가제는 2019년부터 평가인증을 통한 어린이집 질 관리가 평가제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어린이집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보육서비스의 실재를 제시하고 질적인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체계를 위한 기제로 작동되어 왔습니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놀이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보호와 존중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갖고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영유아 권리 존중' 지표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지도점검 외에 별도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 기제가 없었던 이전에 비해 평가제를 통해 질적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는데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 다양한 놀잇감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보육과정,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통해 교직원들의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꼼꼼하게 어린이집을 관리하면서 서류 업무가 많아지고 이런 업무 강도가 아이들의 보육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에서 엄마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한 과정임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3 직무관련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이 궁금해요

Q — 작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올해 아직 후 다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 —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승급, 직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원장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육 교사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승급 교육	1급 승급 교육
	기본교육 / 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대상자]

현직 보육교직원 (단,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비현직 보육교직원도 이수가능)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직무교육시기]

- ▶ 보육교사, 원장 :
현직 경력 만2년이 지난사람, 직무(승급)교육 받은 해부터 만2년이 지난 사람
- ▶ 장기미종사자직무교육:
2년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부득이 기간내 이수를 못받은 경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는 받아야 합니다.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차이수제, '19 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03 직무관련

연차사용이 궁금해요

Q — 보조교사와 연장반 교사도 여름, 겨울 휴가가 있나요?

A — 보육교직원의 여름휴가와 겨울휴가는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 ▶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 ▶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준다면 그 시기를 협의하여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4 심리적성검사

★ 심리적성검사는 옳고 그름이 아닌 사람은 모두 다르며, 다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심리적성성격검사 - DISC 행동유형검사

[개요]

이해

- ▶ 고대 히포크라테스의 기질론 :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 ▶ 1928년 미국 콜롬비아대학 마스톤 교수 'Emotions of normal people' 개발
- ▶ 1970년 미네소타대학 존 가이어 박사 : Personal Profile System 수정

해석의 기준

- ▶ 목표: 동기부여 요소 ▶ 두려움: 의욕을 잃게 만드는 요소
- ▶ 효과 증진책: 개인성장의 기회 요소 ▶ 과도한 사용: 억제하여야 할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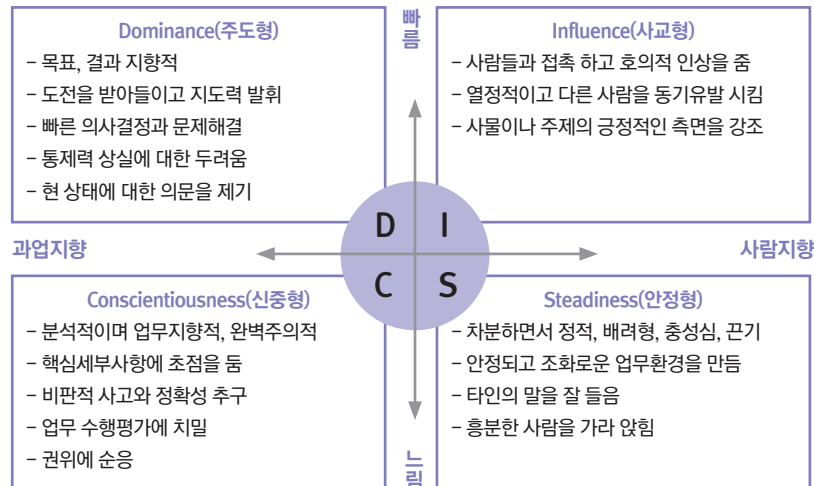
검사방법 : 대면(개별, 집단), 지면검사

검사대상 : 경기도북부지역 보육교직원

검사활용 : 나의 행동유형 이해, 타인 이해, 업무 및 조직의 적용

[내용]

유형별특징



04 심리적성검사

선호하는 환경 및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구분	선호하는 업무환경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D (주도형)	- 힘과 권위 제공 - 위신과 도전이 있음 - 개인적 성취 가능 - 다양한 활동과 업무 가능 - 새롭고 다양한 활동 - 직접적 답을 제공 - 성장의 기회가 있음 - 통제와 감독으로부터 자유	- 어려운 과제를 맡음 -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 - 실제 경험에 근거한 기술이용 -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식 - 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언어표현 - 일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여유를 갖기
I (사교형)	- 인기, 사회적 인정받기를 원함 - 능력에 대한 공개적 인정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민주적 관계 - 직무와 그룹활동 - 통제나 세세한 것에 대한 자유 - 상담과 조언 - 우호적 업무환경	- 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성 유지 - 관리와 경영에 직접 참가 - 타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 - 우선순위와 마감일에 대한 명확성 - 시간관리 - 타인에 대한 단호한 태도 취하기
S (안정형)	- 변화에 대한 이유가 없는 한 현상을 유지 - 예측가능한 일상업무가 제공 - 업무성취에 대한 진실한 평가 - 그룹일원으로 인정 - 일 때문에 가정생활에 침해받지 않기 - 표준화된 절차 제공 - 갈등이 적은 환경	- 변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 자신의 가치를 지각 - 자신이 전체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알기 - 업무 성취를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 - 창의적인 면 격려 - 유사한 능력과 성실함을 보이는 사람과 일하기
C (신중형)	- 업무수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 - 품질, 정확성을 가지 있게 여김 - 전문성 입증 -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 전문기술과 성취를 인정	- 주의깊은 계획을 요구하는 일 맡기 - 직무기술과 수행목표를 정확한 업무 수행 - 업무수행을 평가 - 수행결과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 - 업무성취만큼 사람들 개인적 가치를 존중 - 갈등상황에 대한 인내심 기르기

유의사항

- ▶ 모든 검사는 전문가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 심리적성검사

심리적성격검사 - MBTI 성격유형검사

[개요]

이해

- ▶ C.G.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
- ▶ Katharine Cook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가 보다 쉽고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
- ▶ 1962년 MBTI Form F 출판, 1977년 Form G개발
- ▶ 한국 MBTI: 1990년 한국 MBTI연구소 설립, 2002년 MBTI Form K 표준화, 2012년 MBTI Form M 표준화

검사방법 : 대면(개별, 집단), 지면 또는 온라인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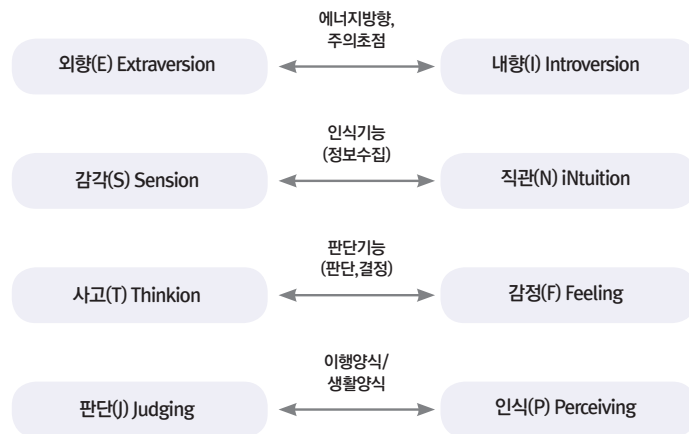
검사대상 : 경기도북부지역 보육교직원

검사활용 : 나와 타인의 성격유형이해, 성격유형에 따른 행동 이해

[내용]

4가지 선호경향

C.G.Jung의 심리유형론에 따른 교육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경향을 말하며 4가지 양극지표에 따라 하나의 범주에 속함



04 심리적성검사

4가지 선호경향 대표적 표현

외향(E) Extraversion	내향(I) Introversion
- 자기외부에 주의집중 - 외부활동과 적극성 - 정열적, 활동적 - 말로 표현 - 경험한 다음에 이해 - 쉽게 알려짐	- 자기내부에 주의집중 - 내부활동과 집중력 - 조용하고 신중 - 글로 표현 - 이해한 다음에 경험 - 서서히 알려짐

감각(S) Sension	직관(N) iNtuition
- 지금, 현재에 초점 - 실제의 경험 - 정확, 철저한 일처리 - 사실적 사건묘사 - 나무를 보려는 경향 - 가꾸고 추수함	- 미래 가능성에 초점 - 아이디어 - 신속 비약적인 일처리 - 비유적, 암시적 묘사 - 숲을 보려는 경향 - 씨뿌림

사고(T) Thinkion	감정(F) Feeling
- 진실, 사실에 주관심 - 원리와 원칙 - 논리, 분석적 - 맞다, 틀리다 - 규범, 기준 중시 - 지적 논평	- 사람, 관계에 주관심 - 의미와 영향 - 상황적, 포괄적 - 좋다, 나쁘다 - 나에게 주는 의미 중시 - 우호적 협조

판단(J) Judging	인식(P) Perceiving
- 정리정돈과 계획 - 의지적 추진 - 신속한 결론 - 통제와 조정 -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	-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 이해로 수용 - 유유자적한 과정 - 융통과 적응 -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성 -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포용성

04 심리적성검사

16가지 성격유형

ISTJ 세상의 소금형	ISFJ 임금뒷편의 권력형	INFJ 예언자형	INFJ 과학자형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	사람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
ISTP 백과사전형	ISFP 성인군자형	INFP 잔다르크형	INTP 아이디어뱅크형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적응력을 가진 사람들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비평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들
ESTP 수완좋은 활동가형	ESFP 사교적인 유형	ENFP 스파크형	ENTP 발명가형
친구, 운동, 음식 등 다양함을 선호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
ESTJ 사업가형	ESFJ 친선도모형	ENFJ 언변능숙형	ENTJ 지도자형
사무적, 실용적, 현실 도모적인 일을 많이하는 사람들	친절한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들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

유의사항

- ▶ 모든 검사는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검사를 희망하시는 경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 심리적성검사

한국형 회복탄력성 검사

[개요]

이해

- ▶ Reivich와 Shattë (2003)의 회복탄력성 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 56문항, 7개 대분류, 8개 항목
- ▶ 김주현(연세대, 2011) 한국형회복탄력성, 53문항, 3개 대분류, 9개 항목

검사방법 : 온라인검사 (온라인검사 및 전화상담)

검사대상 : 경기도북부지역 보육교직원

검사활용 : 나의 회복탄력성 이해, 나의 강점을 알기

[내용]

대분류 :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항목별 :

- ▶ 자기조절능력 :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

감정조절력	-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 - 기능성 고정에 얽매이지 않고 한계를 짓지 않는 긍정적 마인드
충동통제력	-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 억제 -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님 - 성공했다고 행복할까? 에 대한 고민
원인분석력	- 정확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 긍정적 스토리텔링이 원인 분석력을 강화할 수 있음

04 심리적성검사

▶ 대인관계능력: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소통능력	-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 - 친밀함의 전달, 열과 성을 다해 소통
공감능력	-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 공감없는 소통은 거부, 경청 중요
자아확장력	-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 상대방을 나의 자아개념에 포함, 나를 넓혀 상대까지도 포용 - 타인을 ~(엄마, 나 등)처럼 대하는 것

▶ 긍정성: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뇌로 변화시키는 힘

자아낙관성	- 지금의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심감 -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보다 중요
생활만족도	- 평소에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고 꾸준히 수행하여 뇌를 단련 -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훈련 중요
감사하기	- 긍정적 정서 향상 훈련에 최고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갖기 - 회복탄력성의 최고의 훈련법

04 심리적성검사

홀랜드 적성 검사

[개요]

이해

- ▶ 미국의 진로심리학자 Jogn L. Holland의 직업성격 이론
- ▶ Holland(1973, 1985)는 직업인들의 성격과 직업환경을 분석하여 여섯가지로 분류

검사방법: 대면(개별, 집단)

검사대상: 경기도북부지역 보육교직원

검사활용: 나의 적성 이해, 보육현장의 다양한 업무에서의 나의 강점 찾기

[내용]

구분	실제형(R)	탐구형(I)
성격 특성	남성적이고, 솔직하고, 성실하며, 검소하고, 지구력이 있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소박하고, 말이 적으며, 고집이 있고, 단순합니다.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정확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비판적,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잘 타며 신중합니다.
적성 능력감	1. 기계적, 운동적인 능력은 있으나 대인관계 능력은 부족합니다. 2. 수공, 농업, 전기, 기술적 능력은 높으나 교육적 능력은 부족합니다.	1. 학구적, 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적, 과학적 능력은 높으나, 지도력이 나 설득력은 부족합니다. 2. 연구능력이 높습니다.
가치	특기, 기술, 기능, 전문성, 능력감, 생산성	탐구, 지식, 학문, 지혜, 합리성
생의 목표	기계나 장치의 발견 및 기술자, 전문인, 운동선수	사물이나 현상의 발견 및 과학에 대한 이론적 기여
대표 직업	기술자, 자동기계 및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농부, 엔지니어, 전기, 기계기사, 운동선수	과학자, 생물학자, 화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지질학자, 의료기술자, 의사
전공	공학계열, 농업, 해양수산	의학, 약학, 이학, 의학지원계열

04 심리적성검사

구분	사회형(S)	기업형(E)
성격 특성	사람들을 좋아하며,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적이며, 감정적이고, 이상주의적입니다.	지배적이고, 통솔력, 지도력이 있으며, 맡을 잘하고, 설득적이며, 경쟁적, 야심적이며, 외향적이고, 낙관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적성 능력감	1. 사회적, 교육적 지도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있으나 기계적, 과학적 능력은 부족합니다. 2. 기계적, 체계적 능력이 부족합니다.	1. 적극적이고, 사회적이고, 지도력과 언어의 능력은 있으나 과학적인 능력은 부족합니다. 2. 대인간, 설득적인 능력은 있으나 체계적 능력은 부족합니다.
가치	사랑, 평등, 헌신, 공익, 용서, 봉사	권력, 야망, 명예, 보험, 자유, 보상
생의 목표	타인들을 돕고 희생, 존경받는 스승, 치료 전문가	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금융과 상업분야의 전문가
대표 직업	사회복지사, 교육자, 간호사, 유치원(보육)교사, 종교지도자, 상담가, 임상치료사, 청소년 전문가	영업사원, 상품구매인, 보험회사원, 판매원, 관리자, 연출가, 광고대행업자, 언론인, 노동조합지도자
전공	사회계열, 가정, 간호, 체육, 복지, 사범대, 심리	상경, 법정, 사회, 행정, 정치

구분	예술형(A)	관습형(C)
성격 특성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강하며, 자유분방하며, 개방적입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협동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빈틈없고, 조심성이 있으며, 세밀하고, 계획성이 있으며, 변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완고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적성 능력감	1. 미술적, 음악적 능력은 있으나 사무직 기술은 부족합니다. 2. 상징적, 자유적, 비체계적 능력은 있으나 체계적, 순서적 능력은 부족합니다.	1. 사무적이며, 계산적인 능력은 있지만, 예술적, 상상적 능력은 부족합니다. 2. 체계적, 정확성은 있으나 탐구적, 독창적 능력은 부족합니다.
가치	예술, 창의성, 재능, 변화, 자유, 개성	능률, 체계, 안전, 안정
생의 목표	예술계의 유명인, 독창적인 작품활동	금융과 회계의 전문가, 사무행정 전문가
대표 직업	예술가, 작곡가, 음악가, 무대감독, 작가, 배우 소설가, 미술가, 무용가, 디자이너	공인회계사, 경제분석가, 은행원, 세무사, 경리사원, 감사원, 안전관리사, 사서, 법무사
전공	예술, 음악, 미술, 공예, 연극영화, 무용계열, 인문계열	법정, 상경, 행정, 회계, 문헌정보

MEMO

05 훈육과 학대 경계 어디까지가 훈육인가요

Q — 보육하다보면 가르쳐야 할 것들이 정말 많고, 제지해야하는 상황도 자주생깁니다. 늘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로 남고 싶지만 알려줘야 하고 훈육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단호한 목소리와 태도가 필요하기도 한데 작은행동 하나하나 아동학대라는 오해를 받으니 어디까지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A — 두 가지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육 :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를,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
- 학대 : 상대방을 폭력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행동 또는 위협하는 행동

보육기관과 학부모 간 갈등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지만 학대와 훈육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학대 의심 행위 발생 이후 혐의 판단에 쓰이는 것일 뿐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며, 이마저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모든 체벌은 신체적 학대' '아동을 비교하고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정서학대'의 기준입니다.

이런 모호한 기준에 따라서 훈육과 학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행동!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양육정보에서는 훈육을 '훈내기'와는 다르며, '허용되는 행동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섯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 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②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복해서 설명해 주세요.
- ③ 허용 범위 내에서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세요.
- ④ 일관되고 동일한 기준으로 단호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 ⑤ 훈육 뒤에는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영유아들이 사회를 배우는 보육환경에서 환경을 탐색하다가 나타나는 행동들이 저희에게도 너무나 위험하고 비규칙적인 행동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고 보호해주는 나의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05 훈육과 학대 경계 육할 때 어떻게 하나요

Q — 아이들은 정말 예뻐요. 근데 정말 순간순간 육할 때가 많아요. 이러다 정말 큰일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불안하네요

A — 육하는 감정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육하게 되시나요?

답답함. 분노, 화, 두려움, 공포, 우울 등 불편한 감정이 나에게 느껴질 때 '육한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육하다는 '앞뒤를 헤아림없이 격한 마음이 불끈 일어난다'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격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불끈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정에는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사용하기도 하고 더 다양하지만 실제 단순하게 한가지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속상했는지, 불안했는지, 분노했는지, 답답했는지 등 조금만 더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위로받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이를 누르고 지낸다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하게 됩니다. 육하는 것 또한 내가 느끼는 것들을 바르게 해소하지 못했던 것들이 쌓여있다가 폭발하는 반응입니다.

「직장인 분노조절 기술」의 책에서는 다음의 여섯가지를 제시합니다.

- 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기분이 가라 앉는다.
- 화가 났다면 심호흡을 하자.
- 종이에 써보거나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활용하자.
- 감사의 말이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 때로는 이기적인 용서가 답이다.
-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면 화의 반응도 달라진다.

실제로 감정에 대한 조절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수용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연습입니다. 육하는 마음 또한 그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임으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은 연습하고 있는 나를 이해해주세요. 육하기 전에 나의 감정 또한 읽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6 기타

내 아이에게 미안한 나도 엄마예요.

Q — 내 애를 예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일하다 보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은 정석대로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데 집에서는 자녀가 고집을 피우거나 하면 소리지르고 화내고 욕박지르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함이 자주 커집니다.

A — 매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는길, 퇴근길에 만나는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떨어뜨려서 미안하고, 엄마가 많이 품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하고, 보육하는 아이들을 보다가도 생각이 나고, 비교되니 미안하고, 왜 그리 미안한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죄책감을 버리라고 합니다. 엄마가 일하는건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미안해하는게 문제라고 합니다. 미안한데 어떻게 미안해하지 말라는거지?
“나는 엄마가 일하는게 싫어”라는 책에서 저자인 피이오자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 원동력은 자신의 부모가 느꼈던 행복의 정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죄책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유아기의 특성에 따라 영유아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의 상태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고, 모든상황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에게는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전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미안함과 고마움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마음을 다르게 전하기도 합니다.

06 기타 두 마리 토끼

Q — 가정이랑 같이 일을 병행해야 하는데 일에만 신경쓰느냐고 가정에 소홀해집니다. 아이들 등원도 못해줘서 늘 미안하고 일도 미흡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A — 일하라 아이키우라 남편 내조하라 나에게 왜이리 많은 역할들이 있는지 일하는 엄마들은 늘 죄인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안했다면’, ‘내가 아이만 키웠다면’...
엄마로서의 나도, 교사로서의 나도, 다양한 역할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큰 활력이 됩니다. 다만 이런 환경에서 역할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상하게도 엄마는 집에서도 참 바쁩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에서 남자들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하지만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지만은 않았다는 연구가 생각나네요.
일도, 육아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두가지를 균형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천적박사의 “우리 아이 관찰ாய”라는 책에서는 “어느 때에는 아이에게, 어느 때는 일에 좀 더 집중하는 식으로 균형을 옮겨가며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 양쪽을 병행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으로 상담을 오시면 저희와 같은 고민들을 하실겁니다. 그럴때 어떻게 이야기해주시나요? “양보다 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많은 스킨쉽과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말씀하실겁니다. 집에서는 저희도 엄마임으로 교사로서의 내가 부모에게 전한 이야기를 되뇌어 보세요. 선생님은 엄마로서, 교사로서 모두 전문가이시니까요.
일반적인 심리정서적인 고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각각 특징이 있으므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합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III

보육교사 ● 심포
집단상담 사례

러블리 육블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No.1, Only.1

01
러블리 육블리

[개요]

목 표 : 나 이해, 나의 감정돌보기

운영일정 : 주1회, 90분 / 총 4회, 6시간

장 소 : 어린이집 내 보육실

인적구성 : 리더 1명, 집단원 6명

프로그램 :

회기	회기목표	활동내용	소요 시간	준비물
1	참여 동기 강화 및 집단응집력 증진	T.e.e움 보육교직원상담 소개 자기소개 및 별칭짓기	90분	초기상담기록지 동의서, 필기채색류, 활동지, A4용지, 스피커, 만족도
2	내가 생각하는 나 알기	감정빙고	90분	동의서, A4용지, 활동지, 필기채색류, 만족도
3	보육교사로서의 나의 모습 알고 자존감 높이기	속마음 토크	90분	동의서, 상담보드게임 필기류, 만족도
4	자아상의 개선 및 성취	생일파티	90분	동의서, 포스트잇, 필기채색류, 천사점토, 만족도

상담자료



01 러블리 옥블리

[1회기] 얼음장 깨기

프로그램	러블리 옥블리	소요시간	90분
회기명	얼음장 깨기		
목표	▶ 상담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Te.e움 소개〉 ▶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 상담동의 및 비밀보안에 대한 서약을 진행한다.	15'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별칭짓기〉 ▶ 자신이 볼러보고 싶은 이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칭, 별명을 적고 가슴에 붙인 후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게임을 통해 애칭을 볼러 보고 익숙 해질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의 별칭이나 상을 정하고 집단원간에 자유로운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0'	필기류, 포스트잇
발전	〈그래그래〉 ▶ 오늘 하루를 지내오면서 일과중에 잘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여 보고 “그래그래”하며 공감한다. ▶ 공유하고 공감받는 활동을 통해 나의 고민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자유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30'	
정리	〈마무리 평가〉 ▶ 부족했던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나누어본다.	15'	평가지

01 러블리 옥블리

[2회기] 감정빙고

프로그램	러블리 옥블리	소요시간	90분
회기명	감정빙고		
목표	▶ 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상황에 대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안부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인사를 나눈다. ▶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감정을 묻고 답하여 본다.	15'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감정빙고〉 ▶ 내가 생각하는 감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빙고칸 (25개)을 채워 적어 볼 수 있도록 한다. ▶ 상황과 감정에 따른 이야기로 빙고게임을 진행하고 가로, 세로, 대각선 포함 3줄이 먼저 채워진 사람이 승리한다.	30'	활동지
발전	〈감정날씨〉 ▶ 감정빙고에 적어둔 감정들을 중심으로 오늘 하루에 대한 감정 날씨에 대해서 활동지에 적어본다. ▶ 오늘하루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의 상황, 감정에 따른 감정날씨를 기상캐스터가 되어 소개하여 본다.	30'	활동지
정리	〈마무리 평가〉 ▶ 감정에 대한 수용과 표현이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과제〉 ▶ 매일매일 내가 느낀 감정을 세가지 이상 찾아본다.	15'	평가지

01 러블리 옥블리

[3회기] 속마음 토크

프로그램	러블리 옥블리	소요시간	90분
회 기 명	속마음 토크		
목 표	▶ 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나에 대해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안부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인사를 나눈다. ▶ 지난주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내가 찾은 한주 간의 감정들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10'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속마음 토크> ▶ 게임에 대해 안내한다. ▶ 보드판을 준비하고 말, 지시카드 등 보드게임을 준비한다. ▶ 보드판위에 각자의 말을 시작점에 올려두고 주사위를 던져 말을 옮긴다. 옮겨진 칸의 색에 다른 카드를 골라 카드에 적힌 질문을 읽어보고 답해본다. ▶ 이야기를 마친 발표자를 눈을 감고, 다른 참여자는 발표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판정카드(만족 혹은 불만족)로 판정한다. ▶ 발표자는 다른 참여자가 만족, 불만족 판정수에 따라 코인을 받는다. ▶ 코인의 개수로 순위를 정한다. ▶ 제공된 카드 외에 내담자간에 하고 싶은 질문을 직접 적어보고 질문지를 뽑아보고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본다.	70'	활동지
정리	<마무리 평가> ▶ 나의 생각과 가치, 모습에 대해서 찾아본다. <숙제> ▶ 뇌구조 그림 채워보기	10'	평가지

01 러블리 옥블리

[4회기] 생일파티

프로그램	러블리 옥블리	소요시간	90분
회 기 명	생일파티		
목 표	▶ 나를 직면할 수 있다. ▶ 나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 상담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5'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생일선물 만들기> ▶ 내가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 내가 원하는 보상, 선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천사점토를 활용하여 받고 싶은 선물을 만들어 본다.	30'	천사점토
발전	<생일파티> ▶ 어린이집내에 있는 블록을 활용하여 한 개의 케이크를 만든다. ▶ 받고싶은 선물에 대해 무엇인지, 받고싶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본다. ▶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하여 보고 발표한다. ▶ 생일파티를 진행하면서 내가 나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를 읽어 보고, 축하 선물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전달한다. 다른 내담자들은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축하 인사를 나누어 본다.	40'	사탕, 메모지
정리	<마무리 평가> ▶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상담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재치 있는 다양한 상명으로 시상한다. ▶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내용들을 활용하도록 지지하며 마무리한다.	15'	평가지

02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개요]

목 표 : 대인관계 개선, 타인 이해

운영일정 : 주1회, 90분 / 총 4회, 6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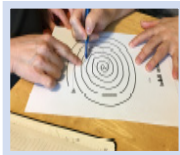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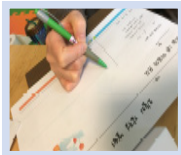
장 소 : 어린이집 내 보육실

인적구성 : 리더 1명, 집단원 8명

프로그램 :

회기	회기목표	활동내용	소요 시간	준비물
1	참여 동기 강화 및 집단응집력 증진	T.e.e움 보육교직원상담 소개 자기소개 및 별칭짓기	90분	초기상담기록지 동의서, 필기채색류, 활동지, A4용지, 스피커, 만족도
2	관계의 구성알기	땅따먹기	90분	동의서, A4용지, 활동지, 필기채색류, 만족도
3	관계안에서의 모습 이해	티타임	90분	동의서, 상담보드게임 필기류, 만족도
4	관계안에서의 내 역할실행하기	협동화 그리기	90분	동의서, 전지, 채색필기류 만족도

상담자료



02 너의 목소리가 들려

[1회기] 얼음장 깨기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소요시간	90분
회기명	얼음장 깨기		
목표	- 상담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Te.e움 소개> -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 상담동의 및 비밀보안에 대한 서약을 진행한다.	15'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별칭짓기> - 자신이 불려보고 싶은 이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칭, 별명을 적고 가슴에 붙인 후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게임을 통해 애칭을 불러 보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의 별칭이나 상을 정하고 집단원간에 자유로운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0'	필기류, 포스트잇
발전	<그래그래> - 오늘 하루를 지내오면서 일과중에 잘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여 보고 “그래그래”하며 공감한다. - 공유하고 공감받는 활동을 통해 나의 고민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자유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30'	
정리	<마무리 평가> 부족했던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나누어본다.	15'	평가지

02 너의 목소리가 들려

[2회기] 티타임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소요시간	90분
회기명	티타임		
목표	▶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 상담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10'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티타임> ▶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성원간의 이해와 교감 활동을 위한 게임에 대해 안내한다. ▶ 한 사람 당 컵 1개, 홀더 1개, 선택카드 1세트(1~8번), 얼음칩 3개를 나누어 갖고, 남은 얼음칩과 질문카드 25장은 골고루 섞은 후 테이블 중앙에 놓는다. ▶ 순서에 따라 질문카드를 한 장 뽑아 투표용 질문을 큰 소리로 읽는다. ▶ 그룹원은 질문 내용에 가장 적합한 구성원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사람 1명에게 자신을 뽑은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어 본다.(맞으면 얼음칩 추가, 맞추지 못하면 얼음칩 1개 반납) ▶ 질문카드의 도전용 질문을 읽어보고 답하며 다른 사람들은 공감 투표를 하여 본다. ▶ 얼음칩을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얼린 마음의 구성원'이 된다.	70'	보드게임
정리	<마무리 평가> ▶ 게임에 참여하면서 느낀점들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10'	평가지

02 너의 목소리가 들려

[3회기] 땅따먹기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소요시간	90분
회기명	땅따먹기		
목표	▶ 관계안에서의 나의 영역에 대해 알 수 있다. ▶ 관계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 상담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5'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땅따먹기> ▶ 전지를 펼치고 말(사탕)을 준비한다. ▶ 내 자리에서의 종이 처음 시작땅을 내 손을 기준으로 하여 반원을 그린다. ▶ 말을 손가락으로 튕겨 3회에 들어와 땅을 만든다. ▶ 타인의 땅에 침범하여 땅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당연하지' 게임을 통해 땅을 뺏어올 수 있다. ▶ 당연하지 게임 - 땅의 주인인 내담자 두명이 마주보고 앉는다. - 순서대로 서로에 대해서 질문하여 "당연하지"라고 답해야 하며 답하지 못할 경우 패하고 땅을 뺏긴다.	30'	전지, 펜, 사탕
발전	<이 땅의 주인> ▶ 땅따먹기를 통해 만들어진 내 땅에 어린이집내에서의 나의 역할과 비중에 대해서 적어본다. ▶ 적어본 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영역을 만들 때의 느낌, 영역을 뺏기고, 빼앗겼을 때의 느낌 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다.	40'	
정리	<마무리 평가> ▶ 부족했던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나누어본다. <숙제> ▶ 어린이집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뇌구조 그림 채워보기	15'	평가지

02 너의 목소리가 들려

[4회기] 협동화 그리기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소요시간	90분
회기명	협동화 그리기		
목표	- 관계안에서의 소통에 대해 알 수 있다. - 관계안에서의 소통을 통한 과정과 결과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 상담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5'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맹인과 달팽이> 2인 1조가 되어 준비한다. - 두 사람이 자신만의 기준(가위바위보 등)으로 펜을 잡을 사람, 설명 할 사람을 정한다. - 신체접촉 없이 언어 지원만으로 선을 벗어나지 않게 지정된 곳으로 선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1차 지점에 도착하면 역할을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2차 지점까지 활동한다. - 활동에 대해 의견, 느낌 등을 나눈다.	25'	활동지, 펜
발전	<협동화 그리기> - 그룹원간에 함께 한가지 주제의 그림을 그리며 1명씩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며 1인당 1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옆사람이 이어서 그림을 그린다. - 그룹원간에 그림을 다 그리면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재작업 한다. - 전, 후 작업에 따라 체감하는 시간의 느낌, 완성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40	전지, 채색도구, 타이머
정리	<마무리 평가> -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상담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 재치 있는 다양한 상명으로 시상한다. -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내용들을 활용하도록 지지하며 마무리한다.	20'	평가지

03 No.1, Only.1

[개요]

목표 : 직무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높이기

운영일정 : 주1회, 120분 / 총 4회, 8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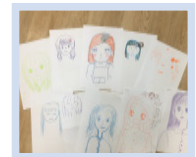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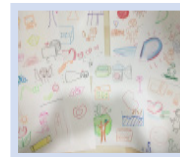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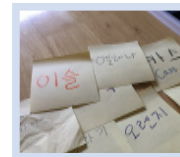
장소 : 어린이집 내 보육실

인적구성 : 리더 1명, 집단원 10명

프로그램 :

회기	회기목표	활동내용	소요시간	준비물
1	참여 동기 강화 및 집단응집력 증진	T.e.e움 보육교직원상담 소개 자기소개 및 별칭짓기	120분	초기상담기록지 동의서, 필기채색류, 활동지, A4용지, 스피커, 만족도
2	내 모습 이해하기	다섯손가락	120분	동의서, A4용지, 활동지, 필기채색류, 만족도
3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 알기	나 이런 사람이야	120분	동의서, A4용지, 활동지, 필기채색류, 만족도
4	자아상의 개선 및 성취	자화상	120분	동의서, A4용지, 활동지, 필기채색류, 만족도

상담자료



03 No.1, Only.1

[1회기] 얼음장 깨기

프로그램	NO.1, ONLY.1	소요시간	120분
회 기 명	얼음장 깨기		
목 표	▶ 상담프로그램의 목적과 진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Te.e움 소개〉 ▶ 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 T.e.e움 보육교직원 상담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 상담동의 및 비밀보안에 대한 서약을 진행한다.	20'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별칭짓기〉 ▶ 자신이 불려보고 싶은 이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칭, 별명을 적고 가슴에 붙인 후 자유롭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 ▶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게임을 통해 애칭을 불려 보고 익숙 해질 수 있도록 한다. ▶ 게임의 별칭이나 상을 정하고 집단원간에 자유로운 스킨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0'	필기류, 포스트잇
발전	〈그래그래〉 ▶ 오늘 하루를 지내오면서 일과중에 잘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이나 고민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 ▶ 이야기하는 상황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여 보고 “그래 그래”하며 공감한다. ▶ 공유하고 공감받는 활동을 통해 나의 고민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자유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40'	
정리	〈마무리 평가〉 ▶ 부족했던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나누어본다.	20'	평가지

03 No.1, Only.1

[2회기] 다섯손가락

프로그램	NO.1, ONLY.1	소요시간	120분
회 기 명	다섯 손가락		
목 표	▶ 나에 대한 장단점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 상담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10'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다섯손가락〉 ▶ 활동지에 나의 손을 대고 그려본다. ▶ 손가락마다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접어본다. - 엄지 : 내가 제일 잘하는 일 - 검지 : 내가 제일 하기 쉽고 느끼는 업무 - 중지 : 내가 가장 끈기 있게 하고 있는 일 - 약지 : 내가 어렵게 느끼는 일 - 새끼 : 내가 되고 싶었던 보육교사의 모습 ▶ 질문은 내담자의 특성등에 따라 다르게 한다. ▶ 활동후 자신의 다섯손가락을 보면서 소개한다.	40'	필기류, 포스트잇
발전	〈그래 나〉 ▶ 활동한 다섯손가락을 올려둔다. ▶ 질문에 따라 다섯손가락을 접고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나의 손을 전달한다. (예시) 어린이집에서 서류업무를 잘 하는 사람, 만들기를 잘하는 사람 등 ▶ 손을 전달받아 선택받은 사람은 “그래 나”를 외치며 사람들이 자신을 왜 선택하였는지 이야기하여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여 본다.	50'	가위
정리	〈마무리 평가〉 ▶ 부족했던 부분, 고민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나누어본다.	20'	평가지

03 No.1, Only.1

[3회기] 나 이런 사람이야

프로그램	NO.1, ONLY.1	소요시간	120분
회 기 명	나 이런 사람이야		
목 표	-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인정하고 알 수 있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 상담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10'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내가 생각하는 나> - 자신의 별칭을 종이에 적는다. -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한다. - 지난주 다섯손가락을 통해 바라본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 해봅시다. -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종이 한 부분에 그린다.	30'	도화지 채색도구
발전	<다른 사람이 보는 나> - 한쪽방향으로 돌려가며 종이에 적힌 별칭의 주인공에 대해 이미지를 그린다.(자신의 그림이 돌아올 때까지) - 자신을 표현한 그림을 살펴본다. - 내가 그린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 나에게 그려준 이미지를 각 집단원들에게 직접 들어 보고 집단원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야기 한다.	50'	
정리	<마무리 평가> - 부내가 생각한 나와 타인이 생각한 나에 대해 느낀점을 이야기 나눈다. - 나에 대해 새롭게, 잘 알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30'	평가지

03 No.1, Only.1

[4회기] 자화상

프로그램	NO.1, ONLY.1	소요시간	120분
회 기 명	자화상		
목 표	- 나의 모습을 표상 할 수 있다. -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단계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인사> - 한주간의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 상담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10'	미니배너, 동의서
전개	<자화상 그리기> - 나에게는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 기억에 남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제공된 재료를 가지고 나의 모습을 그려본다.	40'	도화지 채색도구
발전	<다큐영화 "00(별칭)"> - 나의 자화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한편의 "00(별칭)"이 주인공인 영화를 지금 찍고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 - 영화의 주인공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50'	
정리	<마무리 평가> - 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느낀 것들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다. -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앞으로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20'	평가지

기획 및 집필

정혜원(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전혜자(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인성지원팀장)

홍유림(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팀장)

유현주(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인 쇄 2020년 10월

발 행 2020년 10월

발행인 정혜원

발행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T. 031-876-5767

인쇄처 하늘디자인

※ 본 사례집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